



진흥문화(주), 제19회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 행사 개최 4개국 13명 참가...“한국인의 정체성 찾아가고 있다”

진흥문화(주)(회장 박경진, 대표이사 박형호)는 지난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제19회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에는 미국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로 입양된 13명의 해외 입양인이 참가했다. 지난 1976년 창립된진흥문화(주)는 1996년부터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들을 초청해 모국 방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글 | 입양속 기자 sang@print.or.kr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로 입양된 이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너무 설렌다”고 말하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첫 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과 N서울타워, 인사동, 한국민속촌, 청와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를 방문했으며, 한국전통문화와 예절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뿌리깊은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주에는 설악산 등반, 경포대,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제주도 등을 투어했다.

박경진 회장이 환영사에서 밝힌대로 해외 입양인들은 ‘한국은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나라이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나라’임을 직접 확인했다.

입양인 3명 친부모 극적 상봉

해외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입양기

관에 남아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친부모는 물론이고 위탁 모와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임진구, 김지수, 최은복 등 3명이 친부모와 상봉했다.

임진구씨는 입양기관을 통해 부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사전에 전해 들었지만 친모의 건강 악화로 상봉 당일 만남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사종료 후 개인일정중에 친모를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으나 다행히 예정된 상봉일에 만남이 성사됐다. 그는 입양전 돌봐줬던 위탁모도 만나는 행운도 얻었다.

김지수씨는 입양기관을 통해 친모를 찾았지만 DNA 검사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입양기관의 실수로 상봉일 아침에야 친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지수씨는 행사 후 친엄마와 할머니를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은복씨는 입양기관을 통해 약 1개월간 이메일로 사진 및 간단한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생부와 형제를 만났다.

환송식으로 2주간의 행사 마무리 “한국인 확인의 시간이었다”

지난 6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성수동 진흥문화 사옥 지하 2층에서는 제 19회 2014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방문 환송식이 열렸다. 2주 동안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한 입양인들의 얼굴은 조금 까맣게 타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다.

박경진 회장은 서면환송사를 통해 “2주간의 일정은 매우 짧지만 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대한민국이 축복된 나라임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확인하고, 민족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도 느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한민국인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찾은 뿌리와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쳐가길 바란다. 그래서 반갑고 기쁜 소식을 조국에도 많이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3명의 해외 입양인들은 2주간의 한국방문을 통해 느꼈던 점을 털어놓으며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히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이도,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마음속에 껍꾹 눌러왔던 감정을 조금씩 풀

어내는 이도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감을 발표한 조민옥(미국, 26세)씨는 “첫 번째 한국방문이었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주어서 감사하다. 2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흥문화에 감사드린다. 기대했던 것보다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영(미국, 30세)씨는 “어렸을 때 ‘한국에 찾아갈 것인지, 생모를 찾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진흥문화의 모국방문 행사를 통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내가 누구인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한 주최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친부모와 위탁모를 함께 만났던 임진구(미국, 20세)씨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양인으로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형제와 같은 우애와 사랑을 느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1.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경진 회장 2. 모국방문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박경호 사장 3. 박경호 사장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참가자들 4. Hanbok을 입고 좋아하는 박선영씨



5. 소감을 발표하는 박자영씨 6. 한국방문중 친모를 만났던 김지수씨 7. 2007년 행사참가 후 5년째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씨

최재식(스웨덴, 20)씨는 “입양인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큰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며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만세다”라고 말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최은복(미국, 31)씨는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 실로 인연이 연결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여기에 왔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왔다. 이곳에서 친모를 만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 혈연이 갖는 뜨거운 감정을 내 아이에게도 나눠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를 만났던 김지수(호주, 19)씨는 “한국의 곳곳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었고, 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음식들, 가족간의 애뜻한 사랑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모를 만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자영(미국, 27)씨는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또 민속촌에서 한국의 무용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말을 배워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우윤(네덜란드, 34)씨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됐다. 비록 모르는 한국인이었지만 그들의 결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었다. 또한 함께 한 모든 이들과 감정 교류가 이뤄져 너무나 좋았다. 이번에 경험했던 것을 나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상순(네덜란드, 33)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방식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경험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 환송식을 갖지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 안에 한국과 네덜란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내가 입양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돼 친부모를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미국, 17)씨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도 이해해줬

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K-POP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2주의 경험은 너무 소중했다”고 말했다.

2007년 처음 행사에 참가한 이후 5년째 스텝으로 참가하고 있는 조쉬(호주, 30)는 “2주간의 일정을 함께 하며 참여자들의 감정을 다독여 주기 위해 노력했다. 입양인들은 처음 한국을 방문하면 상실감에 빠지거나 정체성을 못찾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자아상실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1년 처음 행사에 참여한 이후 13년 동안 스텝으로 참가하고 있는 로빈(미국, 38)은 “모국방문 행사를 통해 친부모를 만났다. 그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이 아직도 떠오른다”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입양인들은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나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인의 소감발표에 이어 홈스테이를 지원했던 호스트 패밀리 대표의 참가소감이 이어졌다. 노인경씨는 “함께 지냈던 김상순씨는 한국에 오기전부터 입양됐던 기관을 통해 친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길 원했다. 하지만 자료부족으로 인해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이메일을 통해 알고 있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김상순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라며 “내가 만약 20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게다가 아이의 아버지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보았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이를 입양보냈지만 어머니는 너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희망을 갖고 어머니가 너를 찾길 기다려보자”며 울음을 삼켰다.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행사에 참가했던 입양인들은 입을 모아 “한국에 와서 많은 경험을 했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흥문화와 박경진 회장님, 박형호 대표님, 호스트 패밀리, 스텝들에게 감사드린다.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행사 후에는 1~5일에 걸쳐 친부모를 상봉한 입양인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친부모를 만나지 못한 입양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